유흥주점 이어 산단·병원·유치원까지…무차별 확산

무증상 '조용한 전파'…지역사회 곳곳서 산발적 집단감염

최근 일주일새 35명…전체 74% 사회활동 활발한 20~30대

광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광주에선 처음으로 대학병원내 의료진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n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교도소와 호프집, 유흥주점에 이어 유치원까지 감염원이 되는 등 전파경로도 다양하다.

특히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동선과 접촉자가 많은 20~3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기존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50대 이상이 주 감염원이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광주 557~560번 확진자 등 4명이 추가 확진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557번은 서울에 다녀왔다가 확진자(성북구 386번)와 접촉해 감염됐다. 558번과 559, 560번은 전남대병원 최초 확진자인 신경외과 의사인 광주 546번 접촉자다. 558번은 신경외과 간호사, 559번은 입원 환자, 560번은 같은 신경외과 의사다. 전남대병원에선 지난 13일 546번이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9명(의사 4명, 간호사 2명, 환자 2명, 보호자 1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전남대병원 의료진, 직원, 환자 등 50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16일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운영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들은 분류 후 일부는 지역 종합병원으로 옮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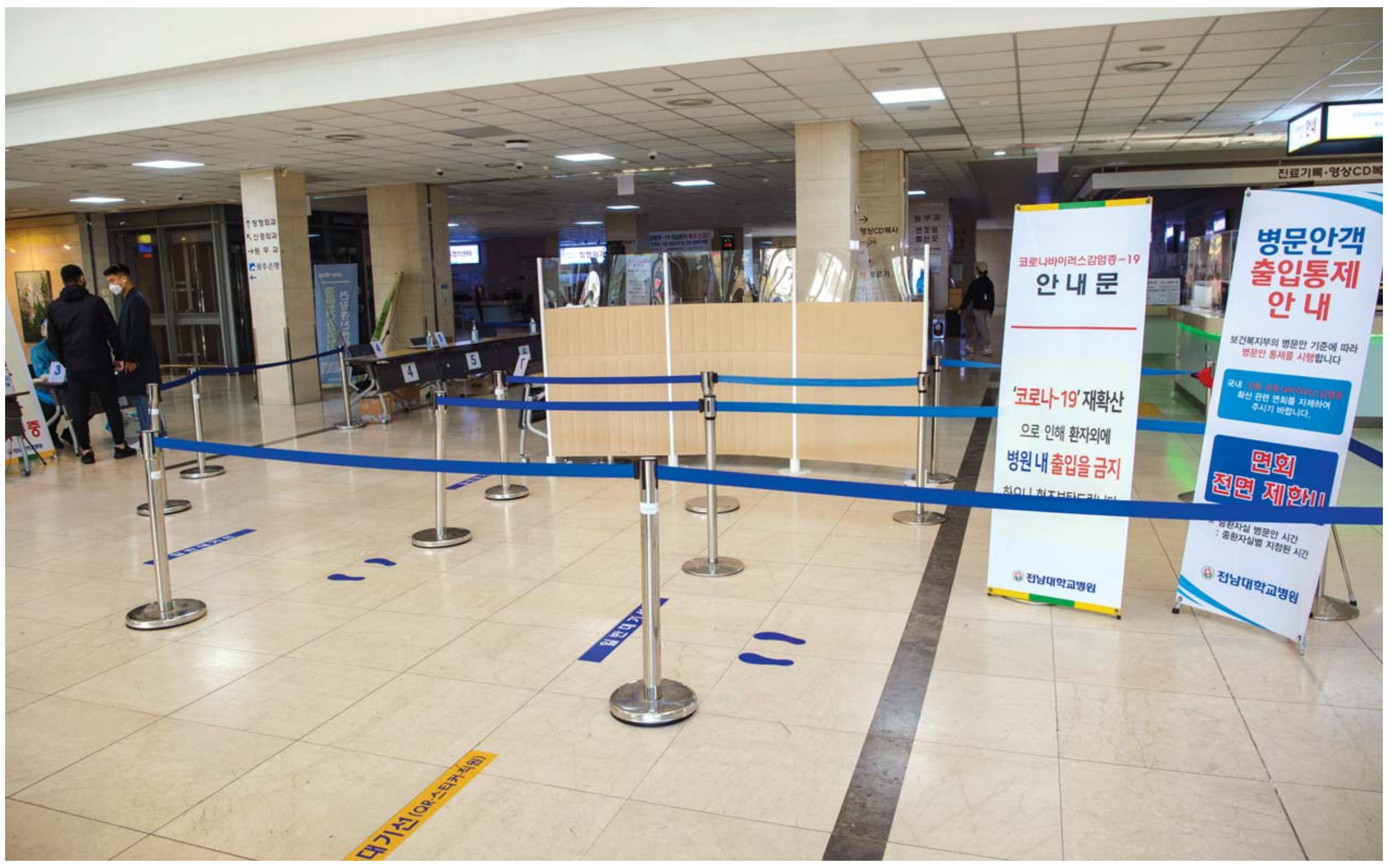
앞서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서구에서 각각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원생 등 총 28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남구 호프집에선 광주 교도소 직원과 유흥업소 종사자가 같은 시간 다른 테이블에 머물렀다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테이블 손님도 감염됐다.

광주에선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난 9일 4명, 10일 2명, 11일 6명, 12일 5명, 13일 7명, 14일 7명, 15일 4명 등 최근 일주일새 지역사회 감염이 35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20~30대는 26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주점이나 유흥업소를 다녀온 20~30대 중 일부는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특히 광주 전체 확진자 중 절반이 넘는 287명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점에서, 젊은층 중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전공의와 환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후 병원 로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한달간 8명 불과했던 확진자 최근 9일간 54명 발생

감염 경로 특정 늦어져 'n 차 감염' 조기 차단 어려움

전남 전남에서 코로나 19는 순천·광양 등 전남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한동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지난 7일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 근무자 확진 이후 광양 소재 기업 등을 매개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생겨났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9일 동안 전남에서는 모두 54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자별로는 7일 3명, 8일 2명, 9일 2명, 10일 0명, 11일 8명, 12일 9명, 13일 13명, 14일 8명, 15일 6명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자가 8명에 불과했었다. 코로나 19 확산은 지난 7일 신한은행 순천 연향지점 근무자 확진부터 두드러졌다. 은행 근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 9명이 확진됐고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도 2명이 나왔다.

화순에서는 지난 11일 광주 방송통신고에 다니는 50대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와 가족 지인 등 4명이 확진됐다.

11일부터 광양제철소 협력사에 근무하는 남성이 확진됐고, 같은 날 광양제철소의 다른 협력사에 근무하는 모친이 확진되면서 광양지역 기업체 근무자,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확진된 전남 201·200번 모자의 코로나 19 확진 이후 진행된 n 차 감염으로 순천·광양에서만 약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순천시 등 동부권 도시와 역학조사 공동협력팀을 구성하고 접촉자 분류, 동선 파악 등 지역 감염차단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바이러스 조기 차단에는 애를 먹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세를 누르기 위해선 최초 감염원 특정과 그에 따른 방역이 핵심이지만, 이번 재확산의 경우 감염 경로 특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순천·여수·광양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점도 바이러스를 조기 차단해야 하는 당국에는 부담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에서 직장동료와 가족을 통한 감염이 잇따라 발생, 일상 속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은 모임 및 개인적인 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증상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병원에 갇힌 보호자도 면회 막힌 환자 가족도 발만 동동

"의료진 수시 왕래"…인근 상가·주민들 감염 우려 불안감

확진자 잇단 발생 전남대병원 가보니

간병인 둔 보호자들 전화 안부 묻고

가운 입은 의료진 줄지어 진단검사

지역 최대 병원 응급실이 폐쇄되고, 의료진이 진단 검사를 받는 낯선 모습이 펼쳐졌다. 전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병원 인근은 불안감에 휩싸여 적막하기까지 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까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보호자는 물론 병원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도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입원환자와 보호자 모두 발만 동동**=지난 14일 전남대병원 인근에는 입원환자 보호자들 일부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전대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14일 오전부터 보호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면회객 등의 병원 출입을 전면차단했다. 지난 13일 신경외과 전공의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이 나온데 따른 조치다. 또 이날부터 병원 내부에 상주중인 환자 보호자는 병원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인근에서는 간병인을 둔 보호자들이 환자를 보지 못한 채 병원 밖에서 전화 통화로 환자의 안부를 묻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병원 앞에서 만난 정모(43·동구)씨는 "모친이 입원해 있는데 면회가 안된다는 문자를 받았지만 혹시나 몰라서 병원을 찾았다"면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뒀지만 직접 어머니를 보지 못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아침에 병원에서 출입 통제한다는 문자 한통 온 게 전부였을 뿐, 어느 병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는 지는 언론 보도를 보고 나중에 알게됐다"면서 "그제서야 간병인의 휴대폰을 통해 입원해 있는 모친에게 다른 병동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병원 내에 상주하고 있는 보호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버리자, 일부 보호자 가족들은 병원 밖에서 어쩔 줄 몰라하기도 했다. 병원에 부친과 동생이 있다는 김모씨는 "부친이 입원해 계셔서 일요일에 동생이랑 간병 순서를 바꾸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갇혀버렸다"면서 "혹시나 아버지와 동생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인근 주민들도 불안**=14일 오후 전대병원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10여 명이 줄을 지어 검체를 채취하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컨테이너 형태의 선별진료소는 투명 아크릴로 막혀 있고 두 팔만 밖으로 꺼내 동료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응급실과 1동의 신경외과 외래진료를 16일까지 중단함과 동시에 지난 13일 이후 출입을 전면통제 한 뒤 의료진과 종사자 등 5000여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인근 남광주시장의 상가와 주민들은 의료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별진료소 인근 식당 주인은 "선별진료소에서 일반 시민이 아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모습이 어색하다"면서 "의사까지 코로나에 걸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 취약한거 아니냐"며 불안감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다른 한 상인은 "거리두기가 완화돼 시장에 활기가 다시 생길 것으로 기대했는데, 전남대병원 의사가 확진되면서 시장을 찾는 인파가 뚝 끊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의료진들이 수시로 왕래했다는 점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주민은 "건너편 상가에 의료진들이 밤마다 드나드는 모습을 봤다"면서 "혹시 코로나에 걸린 의료진들이 다녀간 건 아닌지 걱정돼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